



# 말의 수출

김 태 훈 (삼성전자 승마단 수의사)

※편집자 주 : 각국의 수입위생조건은 국립수위과학 검역원(홈페이지 참조 [www.nvrgs.go.kr](http://www.nvrgs.go.kr))

## 1. 소개

우리나라가 해외로 처음으로 말을 수출한 것은 지난 2001년 승마 국가대표팀이 유럽으로 전지훈련을 하게 된 시점부터다. 그 이후로도 각종 국제경기 출전을 위해 주로 수출되었지만, 말 수입에 비해서는 그 수요가 그다지 많지는 않다. 말 수출 절차는 수입국 위생 조건에 따라 다르며, 수출 목적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번 특집에서는 수출 사례가 많은 유럽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절차

### ① 검역시행장 지정 및 검역 신청

말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검역원의 수출 검역을 받아야 하며, 우선 검역을 받을



수있는 장소(검역시행장)를 마련해야 한다. 검역시행장은 다른 동물과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검역마사, 검역준비실, 탈의실, 소독조 등의 제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검역관이 당 시설을 방문하여 제반 요건을 확인 후 지정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으면, 동물 검역 신청을 하면서, 격리 사육이 시작된다.

### ② 항공편 예약

말의 수입시 이용하는 항공사와 동일하게 유럽의 경우 KLM 네덜란드 항공, Lufthansa독일 항공, 대한항공이 주로 이용된다.

### ③ 혈액 채취

말전염성빈혈(equine infectious anemia) 검사(Coggins test)를 위해 경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며, 채혈 전에 말의 여권을 통해 말의 신원을 확인한다.

### ④ 각종 증명서 준비(유럽의 경우)

수입국 위생 조건에 따라 검역원으로부터 검역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종 증명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해당지역의 전염병 비발생 증명서인데, 본 증명서에는 베네주엘라 말 열 뇌척수염(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가 최근 2년간 발생하지 않았고, Dourine(Trypanosomaequiperdum), 마비저(Glanders, Actinobacillus mallei), 수포성구내염(vesicular stomatitis), 말바이러스동맥염(equine viral arteritis)이 최근 6개월간 발생하지 않았으며, African horse sickness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야 한다.

또한, 사육 농장에서 말뇌척수염(equine encephalomyelitis)에 감염된 말이 도축된 날로부터 6개월, 말전염성빈혈에 감염된 동물이 도축되고 나머지 동물은 3개월 간격으로 Coggins tests에서 2회 음성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수포성구내염(vesicular stomatitis)은 6개월, 광견병(rabies)는 최종 보고된 일자로부터 1개월, 탄저(anthrax)는 최종 보고된 일자로부터 15일간 다른 동물과 접촉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아프리카말병(African horse sickness), Venezuelan equine encephalomyelitis와 West Nile virus에 대하여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고, Japanese

B-encephalitis에 대해 백신 접종을 선적일 기준 30일 이전 6개월 이내 실시하였다는 증명서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동물관리 일지 및 농장 책임자의 신고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 ⑤ 검역증 발급 및 수입국 사전 검토

위의 모든 증명서가 구비되고, Coggins test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검역원으로부터 검역증을 발급 받게 된다.

통상 출국 1~2일 전에 발급받는데, 말이 출국하기 전에 검역증 사본을 미리 수입국 검역원에 제출하여 최종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보완사항이 필요하면, 말이 출국하기 전에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 여권에 Coggins test결과를 기록하고, 검역원 직인을 날인한다.

### ⑥ 출국

격리 의무 사육 기간이 종료되고 검역증도 이상이 없으면, 공항으로 이동하여 출국 수속을 밟는다. 말이 비행기안에서 체류하게 될 Stall box는 깨끗해야 하므로, 말 선적 전에 차염소산나트륨 또는 클로르헥시딘 등으로 분무 소독을 실시한다.

## 3. 땃음말

우리나라는 유럽, 미국 등과는 달리 말 전염병들이 거의 없는 청정국가이어서, 수입보다 수출이 다소 수월한 편이다.

어떤 나라라도 그 나라의 수입 위생조건을 파악하여, 우리 검역원에 협의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검역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자국의 수입위생조건이 다르다 보니, 격리 의무 사육 기간, 검사 종류 및 질병 증명서 등이 다르다. 설령 같은 수입국이다 하더라도, 수입 목적에 따라서도 위생조건이 다르다.

예를 들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 국제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특별 위생조건이 임시로 마련된다.

따라서, 수출하려는 자는 수입국가, 체류기간, 체류목적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해당하는 위생 조건에 따라 수출을 준비해야 한다. 